

# 담양 농업인 10명 중 8명 “농사 지을 후계자 없다”

### 담양군·통계청, 농업 실태조사 농가 용자·보조금 확대 등 희망 농가소득 최대 효자 품목 ‘딸기’

담양지역 농업인 10명 중 8명은 영농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 활성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정책으로 용자나 보조금 확대,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시행 등을 농업인들은 희망했다.

29일 담양군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담양 농업인 1008명을 대상으로 농업 기본현황, 소득 및 지출, 담양군 농업정책 등 4개 부문 29개 항목의 농업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는 농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해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부문 중장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통계청이

담양군과 협약을 맺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최초로 시행됐다.

작물별 재배 면적은 논벼 5651ha(판매액 464억원), 딸기 539ha(785억원), 멜론 192ha(111억원), 방울토마토 152ha(301억원) 순이었다. 면적은 논벼가 6배가량 많지만 소득은 딸기 등 주요 특산물과 비교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우는 2만6741마리를 사육하고 1만784마리를 판매해 402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농업 이외소득은 975억원이며, 농업과 관련해 지출한 돈은 1493억원, 농업에 투입된 인원은 무급 가족 1.3명, 임시와 일용 65.1명, 상용 2.2명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77.4%)이 전업 농업인이며, 평균 종사 기간은 31.2년이다. 3명 중 1명(32.8%)로 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하는 농업 교육 분야는 품목별 농업 기술 전문교육(28.8%)이 가장 많았으며 39.2%가 주변

농가나 지인에게서 농업 정보를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농업기술센터나 농·축협 및 농자재 구입처는 각 29.2%와 15.6%에 그쳤다.

영농 후계자가 있다는 농업인은 18.8%로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영농활동의 어려움으로 농업 관련 비용 인상(30.3%), 일손 부족(24.5%), 농축산물 가격하락(20.0%) 등을 들었다.

농업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분야는 농업 소득 지원(44.7%), 농업 장비 지원(17.2%), 농축산물 판매(9.5%) 순이었다.

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농가 용자 및 보조금 지원 확대(54.1%)와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 및 홍보(48.6%) 등을 들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농업 정책으로 영농 후계자 양성 전문교육(38.6%),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문화 기반 구축(37.9%) 등을 희망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농업인의 소득, 만족도 등 농



담양군 농업실태조사 결과 작물별 소득 중 딸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업 전반의 실태를 조사 분석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 실행해 농민의 삶이 바뀌는 담양을 실현하겠다” 지역 농업 실태에 맞는 중장기 농업 정책을 수립하 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광주시·화순군 ‘동북댐 관리’ 상생 머리 맞대다

### 동북댐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첫 회의 관리권 이양·홍수재해대책 등 협의

동북댐 관리와 관련해 화순군과 광주시가 처음으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29일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와 화순군은 지난 2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동북댐 상생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동북댐협의회 첫 회의에는 광주시 측에서 광주시의회 조석호 부의장과 신수정 환경복지위원장, 광주시 열방열 상수도본부장과 신정하 기술부장이, 화순군 측에서 화순군의회 운영민 부의장과 정명조 의원, 화순군 김종갑 부군수와 조영일 상수도 사업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양 측은 동북댐 관리권 이양, 동북계통 기존 도수관로 처리, 동북댐 홍수 재해대책 등 동북댐과 관련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앞으로 실무급 검토와 안전별 실행 가능 여부를 분석한 뒤 최종 협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실무급 회의는 내년 1월 8일께 열릴 예정이다.

동북댐협의회는 지난 8월 집중호우때 동북댐 수문조절 실패로 화순군민이 큰 피해를 입자, 화순군이 동북댐 항의 방문, 군민 서명운동, 이용섭



화순군과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동북댐 상생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화순군의회 제공>

광주시장 면담 등을 통해 ‘동북댐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제안을 이용섭 시장이 받아들여면서 이뤄졌다.

화순군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동북댐 관리에 매우 방어적이었던 광주시가 동북댐협회를 통해 화순군과 상생의 길을 찾으려데 의미가 있다”

면서 “앞으로 협의회 활동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동북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 수호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장성 대창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 선정

### 2억8000만원 들여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 등 추진

장성군은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했으며, 도시재생 뉴딜의 선행 사업 성격을 띤다.

장성군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대학 개강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사업 소재 발굴에 집중했다.

내년부터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투입해 중앙로 특화 거리 조성, 공유환경 정비, 주민 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에도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야당 반대 특별법 막혔지만...한전공대 기반시설 박차

### 나주시, 진입도로 착공 개교 앞서 내년말 완공

야당의 반대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벽에 막혔지만, 나주시는 법 제정과 별개로 기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8일 한전공대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했다.

이도로는 길이 643m, 폭 25-28.5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된다. 완공 목표는 한전공대 개교(2022년 3월)에 앞선 2021년 말이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보행자 편의를 위한 인도와 자전거 도로도 함께 개설된다.

나주시는 조기 완공을 위해 전남도, 한전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하는 등 애초 계획보다 한 달 앞

당겨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기상악화 등 공사 지연에 대비해 본 공사에 앞서 현장사무실, 세륜시설 등 진행 가능한 사전 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도시기반시설 첫 단추인 진입도로를 착공,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전기·통신 등 추가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연구·교육·산업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을 목표로, 오는 2022년 3월 나주혁신도시에 40만㎡ 규모로 들어선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다른 기반시설 구축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며 “교사 신축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내년 상반기 캠퍼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대원수산, 강진군에 300만원 상당 멸치 200상자 기탁

### 지역 아동·노인복지시설 전달

대원수산이 최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강진군에 300만원 상당의 멸치 200상자를 기탁했다.

<사진>  
김호웅 대원수산 대표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힘들어지고 연말연시 움직임도 제한돼 더욱 추운 겨울이 되고 있다”면서 “작지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라고 건강에 좋은 멸치를 선물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기탁한 멸치 200상자를 지역 아동·노인복지시설 10곳에 전달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